한라시론

사업을 접어야 할 때

유 동 형
진로·취업컨설팅 펀펀잡 대표

최근에 타이니 하우스(농막) 붐이 일면서 이 분야로 창업을 해서 잘 나가던 사업가가 막다른 궁지에 몰려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 경우를 보면서 사업을 접는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

직장을 다니다보면 사표를 쓰고 싶은 순간들이 자주 온다. 어떤 이들은 가슴에 열정을 품고 다닌다고 하지만, 어떤 이는 가슴에 사표를 품고 다닌다고 한다. 이렇게 직장생활이 쉽지 않지만 사업을 하는 경우도 그 이상으로 만만치 않다. 몇 년간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사업이 번창할 때야 괜찮지만 사업이 어려울 경우는 과연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 좀 더 무리해서라도 투자해서 버틸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접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일을 하다가 알게 된 형님이 있다. 사업을 하다가 다 정리하고 조선소에 내려와서 배관공으로 일하시는 분이셨다. 사장님이었다가 어떻게 그렇게 과감하게 사업을 접을 수 있었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이전에 한번 폭삭 망한 적이 있어서 접을 때가 언제인지 알겠더라고 했다. 20대에 군대 다녀온 후에 첫 사업으로 동남아에 한국산 중고 컴퓨터를 수출하는 일을 했다고 했다. 많을 때는 직원이 20명 정도 됐고, 1년에 몇억을 벌 정도로 잘됐다고 한다. 동남아 현지에서 PC방 사업까지 확대했다가 망해서, 결국은 무일푼이 돼서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그때 나이 32세. 다시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을 손댔다가 중고차 수출 쪽으로 아이템을 정했다고 했다. 한국차가 가성비가 좋아서 중동에서 매우 인기가 있었다. 이 아이템으로 거의 20년 동안을 일했다고 한다. 그렇게 잘나갔는데 중동이 이라크전 등으로 정세가 불안해지고,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매출이 한 달 만에 반 토막이 났다고 했다. 그래서 10명 있던 직원을 반으로 줄여서 3개월을 버티고, 다시 3개월을 버티어봤는데도 호전될 기미가 안 보이자 사업을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했다. 다행히 재고를 급히 처분하고 리스크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정리하는 데 별 무리가 없었다고 한다. 재고를 정리하고 임금을 다 정리하고 나니 그래도 집과 몇억은 남았다고 했다. 그래서 부담없이 머리 식힐 겸 조선소에 내려와서 배관공으로 새롭게 일을 시작했다고 했다. 동종업계에서 같이 사업하시던 분들은 정리할 타이밍을 놓쳐서 1년, 2년 끌다가 작게는 3억, 10억씩 빚을 졌다고 했다.

직장인은 회사가 망하면 임금을 못 받으면 되지만 사업을 하다가 망하게 되면 전 재산을 잃고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게 된다. 그만큼 근로자인 경우보다 충격이 무지막지하다. 어떻게 될 것 같으면서도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사업이다. 버티기보다 분기별로, 반기별로 분석해서 어려우면 과감하게 접기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접어야 할 때를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설

코로나에 태풍까지, '씁쓸한 추석' 될라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오늘(8일)부터 사실상 추석연휴가 시작된다. 추석은 온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조상의 음덕을 기리며 이야기꽃을 피우는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올해도 그런 추석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안심할 수 없어서다. 게다가 추석을 앞두고 강력한 태풍까지 덮치면서 즐거운 명절을 맞기는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6일 제주를 강타한 제11호 태풍 '힌남노'는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를 뿌리고 지나갔다. 강풍과 폭우로 제주 전역에 많은 상처를 남겼다.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등 상당한 피해가 잇따랐다. 태풍만이 아니다. 이미 오를대로 오른 물가도 추석명절을 부담스럽게 한다. 지난달 다른 지방에 내린 폭우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태풍까지 휩쓸면서 '치솟는 물가'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 차례상을 준비해야 하는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커지면서 한숨만 깊어진 것이다.

올해 추석 역시 편치 않은 것은 코로나19가 불안하다는데 있다. 물론 최근 들어 확진자가 눈에 띄게 줄면서 재유행 확산세는 다소 수그러들기는 했다. 그렇다고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는 점이다. 아직도 하루 발생하는 신규 확진자가 500~600명이 나온다.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가 잇따르고 있어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는 것이어서 더욱 그렇다. 모처럼 가족들이 모여 정담을 나눌 수 있지만 마음 놓고 마냥 만날 수도 없어 '씁쓸한 추석'이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연내 결론 내자

화산섬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고시절차가 연내 마무리될 지 주목된다. 그간 보존과 재산권 행사라는 첨예한 입장차로 답보였던 '곶자왈 보존지정·고시' 절차가 사유지 매입 재원과 사유지 활용방안 등 마련으로 새 전기를 가져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곶자왈 보존은 아직도 마을·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로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도는 최근 '곶자왈 보전관리 및 활용방안 워킹그룹 회의'를 열어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에 따른 주민설명회와 관련 조례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곶자왈 사유지 주민들의 반발로 2015년부터 수 차례 중단·재개를 해 온 곶자왈 실태조사·보전관리 용역이 작년 7월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안)'을 냈지만 주민 반발로 진전을 못 본 상태서 이번 회의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다. 도는 별도로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 개정안을 통해 사유지 활용방안을 만든데다 최대 쟁점인 사유지 매입 재원도 '특별회계'조례로 마련한다는 방침이어서 연내 곶자왈 지대 지정·고시 절차 마무리에 힘을 싣고 있다.

곶자왈이 보호지역 지정·고시절차를 마무리한다면 보존정책에 '큰 획'을 긋게 된다. 당연히 사유지 곶자왈에 대한 마을·토지주 협의가 선결돼야 할 상황서 곶자왈 보호와 재산권 간 합리적 방안 도출엔 '제주미래'라는 대승적 접근이 절실하다. 곶자왈 보전관리 용역이 시작되고 무려 7년 지난 지금, 언제까지 불법훼손과 '논쟁'을 지켜볼 수 없는 만큼 도민·행정 모두 연내 '마무리'에 중지를 모을 때다.

편집국 25시

당신의 밤은 우리의 낮보다 아름답다

김 도 영
행정사회부 기자
doyoung@ihalla.com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 도로에 쓰러진 가로수를 전기톱으로 자르고 옮긴다. 강한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조치하고 다음 현장으로 이동한다.

집채만 한 파도가 밀려오는 해안가, 태풍 구경에 나선 철없는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통제에 나선다. 이어 배수구가 막혀 침수된 도로에서 신속히 맨홀을 제거해 물을 빼낸다.

항구로 피항한 어선들의 훗줄이 뒤엉켜 자칫하면 선박이 전복될 수 있는 상황, 주저 없이 바다로 뛰어들어 안전조치에 나선다.

지난 6일 더없이 강력했던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강타한 제주지역은 크고 작은 피해가 이어지며 악몽 같은 밤을 보냈다.

"강하다", "정말 강력하다", "역대급 태풍이다." 계속해서 이어진 언론 보도에 모두가 긴장한 덕분일까.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이 돼 준비했지만 그보다 강력한 것이 자연재난의 진짜 모습인 것 같다.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이다.

뜬눈으로 밤을 새우며 헌신적인 태풍 대응 활동을 펼친 소방관과 경찰관, 해양경찰관, 의용소방대, 공무원, 그리고 시민 등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다.

모두에게 감사한 태풍의 밤이었지만 언제까지 사람에 기댈 수는 없다.

이번 태풍 기간 경남 창원에 세워진 기립식 방조벽이 눈에 띄었다. 평소 산책로로 이용되다 월파 예방을 위해 높이 2m, 너비 10m의 벽 20개는 30분 만에 든든히 세워졌다. 재난을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엿보인 사례가 아닐까.

뉴스-in

"한가위 보름달이 모든 어려움 걷어가길"

추석 앞둬 청렴 교육 서한문

○…제주도교육청이 추석을 앞두고 7일 도교육청과 각 기관·학교 홈페이지에 '청렴 제주교육 실현에 따른 교육감 청렴서한문'을 게시.

김광수 교육감은 서한문에서 "청렴한 제주교육은 외부의 규제나 틀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노력과 실천만이 이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

김 교육감은 이어 "제주교육은 소통을 통해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이 서로 소통하고 믿음을 쌓아간다면 신뢰받는 청렴한 제주교육의 문은 활짝 열릴 것"이라며 "한가위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빛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걷어가고 청렴한 제주교육의 미래를 훤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기원. 진선희기자

제주포럼 '문화도시 세션' 주목

○…서귀포시가 오는 16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1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 '공존, 공진화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문화도시'라는 주제로 세션을 운영하며 주목.

김정훈 제주대 경상대학장이 좌장을 맡는 문화 세션에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석 자문관인 이탈리아 국적 피에르 루이지 사코, 비로컬 주식회사 김혁주 대표가 각각 주제발표에 나설 예정.

시 관계자는 "국내외 문화 교류·협력 방안과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 등에 대해 문화도시 관점에서 논의하게 된다"며 "서귀포시가 문화도시 플랫폼으로서 국제적인 문화 교류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언. 백금탁기자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의료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23-중-3524호
동구치과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장 신동구
중앙신협(신축) 2층 동구치과의원
제주소방서
제주대
시청
제주중앙여고
제주지방법원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 756-2833

그랜드 보청기
한가위 고객감사 大축제 물가안정 이벤트
① 20만원 상당 삼산배양근 ② 15만원 상당 UV전자 습기제거제
※ 1번 소진시 2번 사은품 제공됩니다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충전형 귓속형 보청기
충전형 보청기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삼촌들 혼저 전화 주십서! 기다렴수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 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차장 (무료주차)
서사라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겹구이 서광로 225 2층
제주시버스터미널 서사라 사거리 그랜드보청기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 보청기 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표 임장완
찾아오시는 길
제주은행 하나약국 한국병원 시외버스터미널 오라파출소 국제보청기 (국제기계2층) 한라체육관 실내수영장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